

6

가정예배 · 구역예배 안내서

1996

충현의 만나

출애굽기 · 마태복음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6

1996

가정예배 · 구역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출애굽기 · 마태복음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기 도 제 목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담임 목사가 속히 부임될 수 있도록
2.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가 되도록
3. 김창인 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4.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5.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구역 조직을 통하여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6.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7. 민족 복음화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8.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6년 6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마태복음 서론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한 주요 목적은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마태는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을 빈번히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이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 어떻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는가를 보여주었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의 혈통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밝히고 있으며 '다윗의 자손' 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은폐시키려는 유대인들의 시도에 대항하여 부활의 사실성을 힘주어 강조하였다.

마태는 옛 계약과 새 계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계획에서 차지하는 이중적인 지위를 조명해 준다. 특별히 하나님의 옛백성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빼앗길 것이며, 그 특권은 이제 새백성에게로 넘겨질 것이라는 면에서 교회를 강조하고 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때는 예루살렘 성전파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주후 70년 경으로 추정한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29:4)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데는 먼저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무교병과 무교 전병을 가져오라 하였는데 이것은 제물을 준비하여 가져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물로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수양을 잡아 그 피를 제사장의 오른 귀 부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서 그들을 성별하라고 하였습니다. 귀를 성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라는 뜻이요, 손발을 성별한 것은 실제의 행동과 생활을 거룩하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깨끗하지 못하거나 성별되지 못하여서는 위임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별시킨 것입니다. 옷도 거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속옷과 겹옷과 예복을 입고 흉패를 달고 띠를 띠고 관을 씌우고 성패를 붙이고 관유로 그 머리에 붓고 단위의 피와 관유를 아론과 아들의 옷에 뿌려서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의 성별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장직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걸 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은 성별된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려서 헌신하며 영광돌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기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결의 삶이 우리속에 열매맺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 기도 / 주여 우리를 성결의 영으로 거룩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교회가 먼저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29:45)

누군가가 언제나 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위안이 되겠습니까? 본문에는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고 이것을 통해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이제 갓 깨어난 병아리는 어미 닭의 품이 없으면 위협에 노출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많은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을 누가 보호하며 누가 지킬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위험 천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백성들 중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보호의 손길을 펴십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반석이시라는 고백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당신의 자녀들 중에 거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슬픔 중에 있어도 그리고 위험 중에 있어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힘든 세속의 유흥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구원의 날개아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왕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됩시다.

▶ 기도 /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김창인 원로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월) 하나님과 죄인의 만남

찬송 / 93장 본문 / 출 30:1-16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3:12)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정결케 하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되어집니다. 인간은 단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만남에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 만나며 어떻게 만나며 결과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하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영원하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 만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요14:6)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은혜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워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여전히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 만남의 장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갈 때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 기도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풍성케 하옵소서.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며 양무리를 바른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담임목사님을 속히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30:30)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성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구별’ 그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구별을 원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물두멍을 만들고 물을 담아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기 전 수족을 씻어서 죽음을 면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관유를 만들어서 성막에서 쓰여질 물품들에 발라서 지성물로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도 발라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몸치장을 위해서는 쓰지 못하며, 타인에게 팔기 위해서 제조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 분향단에서 쓸 향을 제조하라고 그 재료와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으로 향을 맡으려고 향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은 죄에 대한 그때그때의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유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그 인도따라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분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과 부패방지를 말합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회개하여 수족을 씻고,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에 힘씀으로써 성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회개와 성령충만 사모와 간구로 성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충현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성별됨과 구별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31:3)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친히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부르신 일꾼들에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일꾼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의 기구들을 만들 일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 은, 놋, 보석, 나무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소의 물건을 공교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명한 회막, 중거계, 속죄소, 상, 정금 등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제사장 의복, 관유, 향 등과 그 모든 기구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고도 자세하게 모든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충성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일꾼을 부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으로 여러 가지 지혜와 총명과 재주를 주셔서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 기도 / 성령과 지혜와 재주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말씀의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31:13)

하나님은 옛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칠일에 쉬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옛새 동안 일하고 칠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성일이므로 더럽히는 자, 즉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옛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쉬셨습니다. 인간도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모든 피조물이 갖추어져 있어도 죄문제로 안식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청산하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심으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칠일(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성일로 지키면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주일을 성수함으로 언약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된 참 안식을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쳐질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주일을 범하면 하나님과의 생명력있는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일을 온 종일 성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됩시다.

▶ 기도 / 주일을 종일 거룩하게 보내게 하소서. 당회원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져 교회 변화의 초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32:1)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불안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부추겨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던 그들이 한 순간의 불안으로 우상숭배를 도모한 사실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며, 믿음이 연약한 연유였습니다. 첫째, 보이는 하나님을 요구합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보이는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요구합니다(1절). 오늘날 교회내에도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구하고 인간관계에 얽매며 신앙생활하는 무리들이 교회를 분열,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만족할 만한 표적을 얻지 못하면 크게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씹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투자합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기 위하여 자기들이 차고 있던 “금 고리를 빼어”(3절) 가져 왔습니다. 오늘날 교회내에도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를 위한 투자보다는 이처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하여 씹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는 하늘 나라의 창고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20:4,5)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백성 중 3천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비참히 죽어갔습니다(28절). 실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자들은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릇된 신앙을 청산하고 성경에 당신 자신을 충분히 계시해 보이신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과 바른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이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봉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32:22)

인간의 악한 본성 탓인지, 자신의 범죄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고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핑계를 내세웠습니다.

첫째, 환경을 핑계삼았습니다. 불같은 모세의 꾸중을 아론은 대뜸 ‘백성의 악함’ (22절)을 핑계삼았습니다. 오히려 백성의 허물을 감싸주고 그것을 대신 책임져야 했던 지도자가 그 모든 책임을 백성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둘째, 지도자를 핑계삼았습니다. 모세의 책망에 대하여 아론은 ‘모세의 더듬’을 핑계로 내세웠습니다(23절). 즉 모세가 산에 올라간 후 오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유발되었다고 모세를 탓했습니다. 셋째, 가능한 모든 핑계거리를 들먹였습니다. 아론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24절)라고 하여 자신의 허물에 대해 급기야 불을 핑계로 삼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범죄하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각종 이유를 내세워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핑계가 받아들여 진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줄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핑계치 못합니다. 오히려 핑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더욱 불어날 뿐입니다. 진정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지은 죄를 솔직히 자백하고 인정하는 것 뿐입니다. 입을 열어 자신의 실수에 대해 진지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나의 모든 잘못에 대해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소서. 교구일꾼들이 모이기를 기뻐하며 모일 때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33:5)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노하셔서 백성을 멸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하여 전 백성의 멸절은 면하고, 하나님께서는 “단장품을 제하라”(5절)고 명령하셨습니다.

‘단장품을 제하라’는 명령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첫째, 죄악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들의 단장품을 사용했습니다(32:2,3). 즉 부녀자들이 몸에 치장하고 있던 금고리를 아낌없이 빼내어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단장품은 범죄에 사용된 도구였기에 죄악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단장품을 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끊어 버리지 못한 옛 습관, 아직도 주변에 방치하는 죄악의 요소들, 위선과 교만 등이 우리가 버려야 할 단장품입니다. 죄악의 요소를 과감히 버리고 진실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징계와 자비를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하여는 단호하시지만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크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도 버려야 할 단장품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죄악의 요소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할 성도의 의무입니다.

▶ 기도 / 우리의 단장품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담대함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찾아 기도하고 진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와 질투라 이름하는...』(34:14)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 당시 횡행했던 이방의 잡다하고 추악한 풍습과 우상숭배 등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엄격한 규례를 선포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12절)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언약이 올무가 되어 그들이 죄악에 물들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인과의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규례는 ‘죄악과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단의 체계가, 보일듯 말듯한, ‘그 정도 썸이야’ 하는 작은 죄로부터 시작하여 마침내 우리의 전 인격을 부패시키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을 깨닫고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14절)고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경고를 무시하고 다른 신에게 절한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어떤 대상에게도 마땅히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돌려서는 아니된다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17절)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매일 너무나도 많은 정열을 허비합니다. 반면에 영원한 하늘을 위해서는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아예 무관심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생활할 때 비로소 하늘 곡간에 있는 우리의 보화가 넘쳐날 것입니다.

▶ 기도 /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의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게 하소서. 찬양대원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며,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35:29)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성막건축에 관해 지시하고, 그에 따른 건축재료들의 헌납과 인력지원을 부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구체적인 요구와 지시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거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백성의 동역과 순종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그 예물의 물질적 가치보다는 드리는 자의 정성과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성막을 짓기 위하여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5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본문에는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 등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자원해서 헌금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있어서 즐겁지 아니할 이유가 없으며, 인색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이는 각자 소유한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성도의 의무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각자의 재능을 부여하신 뜻은 사람 모두가 각자 삶의 터전에서 고유한 재능을 발휘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 기도 / 교회와 구역의 봉사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하여 충만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 지은 것이라.』(36:8)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단계로 그들은 성막 건축에 필요한 각종 재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7절)는 말씀대로 그들이 정성껏 모은 재료가 성막을 완공하고도 크게 남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성막 건축 재료가 남은 이유는 “아침마다”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듯이 백성들이 바치는데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막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일입니다. 또한 지성소와 성소의 벽이라 할 수 있는 널판들과 널판을 튼튼히 연결시키는 일입니다. 특히 이 널판들을 연결하는 모든 구조물은 영적으로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널판은 곧 교회의 근간이 되는 성도를 예표하며 가장 중요한 용도가 성막의 뼈대로서 비바람을 견디는 버팀이 되듯이, 우리 역시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로서 세상의 죄악과 세속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방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널판을 세우는데 필수적인 받침은 은으로 만든 것이어야 합니다. 이 은받침은 바로 당신의 몸을 찢어 피흘리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받침이 없이 널판을 세울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분의 말씀에 기초하여 모든 사역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 기도 / 한 성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각 교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열심으로 이웃을 보살피고 도울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씌으며 …』(37:28,29)

백성들은 성막 본체가 완성된 후 성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성소 내의 기물, 즉 법제와 속죄소(1-9절), 떡상과 그릇들(10-16절) 및 등대(17-24절), 그리고 분향단(25-28절)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성막 내부의 기물들이 조각목과 정금 두 종류의 재료로만 제작된 것입니다. 이는 인류의 대속 및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정금은 그분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등대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분향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향을 피워 올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피워 올리는 향은 성도의 온전한 헌신과 기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관유는 성물과 성막봉사자에게 각각 발라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결국 성령의 새롭게,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예표합니다. 이처럼 성막의 각종 기구와 물품들은 신약의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성물의 제작은 여호와와의 계시에 기초하여 독창적이고도 거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구약의 지성소라는 폐쇄적 공간에 갇혀서 대제사장 외에 접근할 수 없었던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민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이 내리시는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도 / 예수님의 피로 세운 충현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데 나의 은사와 시간을 바칠 수 있게 하소서. 남녀전도회의 각 회원 가정의 평안함과 온전함을 위해 가정에 충실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낫 단과 낫 그물과 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38:30,31)

성막 본체와 지성소와 성소의 기구 그리고 성막 뜰에 배치될 기구들이 완성된 후 브살렐과 그의 협력자들은 성막 뜰과 외부를 구분할 포장과 기둥 받침들을 제작합니다. 결국 성막 뜰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성품과 사역을 예표합니다. 성막 뜰은 회생을 상징합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드린 많은 제물들이 피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회생제물을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으며, 죄씻음을 받고 성막 뜰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뜰에 거하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회생 때문입니다. 또한 성막의 뜰은 제사장의 가족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장소로서 화목을 상징합니다(레 6:16).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 전제됨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성막 뜰에 거하는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화목한 생활을 해야 하며, 더불어 주변의 이웃과 화목해야 합니다.

성막과 성막내 외부의 모든 것을 제작한 후에 지금까지 수고했던 일꾼들과 제작에 소요되었던 물품들의 합계를 대략적으로 결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쳐진 물건 이상으로 값어치 있는 자발적인 헌납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요 유일한 경배의 대상으로 고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기도 / 성도로서 이웃과 구역원들간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성결함을 회복케 하셔서 마음의 부패와 타락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또 호마노를 깎아 금테에 물려 인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39:6,7)

본문 말씀은 아론이 성소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을 옷에 관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사장이 입을 옷의 식양을 직접 설계해 주셨고, 제작자는 그 설계에 따라 정확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을 성결의 옷은 크게 7가지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상징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에봇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히 4:15)를, 두번째로, 흉패는 택한 백성을 모두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계 3:5,20)을, 세번째, 에봇 받침 겹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신성(24:10)을, 네번째, 관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요 5:19)을, 다섯번째, 띠는 종된 모습으로 성도를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의 실천(요 13:4,5)을, 여섯번째, 반포 속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무죄한 인성을, 일곱번째, 성패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에 대한 보충패(고후 5:21)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성도는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벧전 2:9). 그러므로 성도들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입었던 특별한 옷, 곧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지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기심과 탐심으로 얼룩진 더러운 옷을 벗고 회개함으로, 죄악으로 찢든 옷을 벗고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된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 기도 / 우리 모두가 천국잔치에 합당한 세마포를 입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정직과 공평으로 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40:38)

본문은 성막 봉헌에 대한 제반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결과 성막의 봉헌 날짜와 성막기물들의 배열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이처럼 성막의 건축은 구상과 설계, 작업, 봉헌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 말씀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성막 건축이 인간의 손에 의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성막의 실질적 주인은 하나님이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의 모든 단계를 세심하게 주시하시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장소로 성막을 건축하시기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왕상 9:3). 이와 같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막의 봉헌으로 실현되었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실제로 그의 백성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였습니다(마 1:23).

결국 구약시대의 성막은 바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래 전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당신의 모습을 자기 백성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성령님을 통해 여전히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롬 8:9).

▶ 기도 / 우리들의 심령과 가정이 거룩한 성막이 되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더욱 많은 장애인들이 교회에 나와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그들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1:21)

본문은 예수께서 구약 예언의 성취인 다윗의 후손임을 밝히기 위해 먼저 그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족보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각양 각층의 사람들을 다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본문의 족보에는 아브라함, 이삭, 롯과 같은 신앙의 영웅들이 있는가 하면, 라합이나 다말처럼 수치스러운 과거를 지닌 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헤스론이나, 나손, 아킴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아비아나, 므낫세처럼 사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인간들의 실패나 범죄로 말미암아 제한받지 않으시고 바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각개 각층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남녀의 차별도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혈통은 불명예스러운 죄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기도 / 우리 위해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질병(신장)이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2:9-10)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인생 모두가 길 따라 흐르듯 삶을 사는 나그네 들입니다. 특히 성도들의 경우 '천성'이라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입니다(히 11:13-16). 이 길은 너무 멀고도 험하여 우리는 곧잘 넘어지고, 주저 앉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인생이 캄캄한 밤과 같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를 위해 우리의 갈 길은 분명히 정해졌지만, 나그네 길을 살아가다 보면 부딪치게 되는 여러 극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 막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흑시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아무 것이나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돈이나 권력, 지식, 점, 사주팔자, 궁합 따위를 되는 대로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서는 먼 동방에서 별을 따라 가기 예수께 경배하러온 박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둠을 뚫고 먼 길을 찾아와 자기 예수께 경배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나그네 인생길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통해 어둠을 헤치고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과연 의지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을 갈대에 비유한 파스칼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생의 나약함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인생길에 있어서 무언가 의지하며 살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단 하나 그리스도와 그에게서 나오는 복음의 빛밖에 없습니다.

▶ 기도 /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육호기 선교사(독일)를 통해 배포되는 러시아어 성경을 통해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3:2)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오직 복음증거에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토록 열심히 가르쳤던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래 ‘회개하다’라는 말쑤은 ‘마음을 바꾸다’ 혹은 ‘무슨 일을 후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바는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여 그 계획을 바꾸거나 어떤 일에 대한 후회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전 인격과 아울러 철두철미한 행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천국이 가까왔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현될 그 날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나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별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오직 심판만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자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천국 일꾼이 되게 하소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가 강의하는 복음주의신학교를 통하여 훈련되어진 사역자들이 이슬람의 각 나라로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4:4)

본문은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섭리 가운데 예수의 메시아직에 대한 정통성과 능력, 그리고 순결성에 대한 사단의 도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 가지의 시험을 하였습니다. 첫째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메시아로서의 초월적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적이나 마술적인 능력을 보임으로 추종자들의 추앙을 받거나 스스로의 능력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번째의 시험은 천하를 통치할 권세를 얻으려면 먼저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과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을 하나로 결탁하여 가장 최고의 모습을 만들어 보자는 유혹이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시험들은 교묘하기 이를 데없으며, 지극히 현실적인 입장에서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분의 능력으로 대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의 무기를 준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하셨습니다.

▶ 기도 / 우리들도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하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의 사역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5:12)

본문은 성경 전체와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관계에 대한 가장 완벽한 수준의 윤리적인 체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특별히 '산상수훈' 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1-8절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의 조건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복의 의미를 8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물질과 명예와 쾌락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영원한 행복과 관계된 사실임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행복의 일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이고도 영원한 행복 그 자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나타난 복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신실하고 순결한 신앙의 자세를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그 결과로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진 천국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천국시뮬다운 삶의 자세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받는 상이 크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되게 하소서. 안석렬 선교사(수리남)의 사역을 통하여 수리남의 잘못된 결혼풍습(결혼 전 동거)이 근절되며 바른 결혼풍습이 자리잡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5:48)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전통에 대해서 메시아적인 사역을 이루시려는 예수님의 독특하신 해석이 나타나 있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제6계명과 제7계명, 그리고 이혼법과 맹세법, 복수법과 사랑의 실천 대상 문제들을 실례로 들어 적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명확한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참으로 귀중한 의미가 담겨진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대개 자기 자신의 기준과 방법을 가지고 선을 이루고 살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인’이라는 외형적인 문제에 주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움’이라는 마음의 문제를 바라 보시고, 형제의 잘못이나 이웃의 무리한 요구에 억지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외면해 버리기 일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성실의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외형상의 경건함만을 자랑하기 쉬운 우리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신 사랑을 기준으로 하여,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 가야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 모두도 영육간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 기도 /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가게 하소서. 김은태 선교사(중국)의 사역으로 중국 땅의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공산주의 하에서 두려움과 포기되어짐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치료받고 나음을 입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6:1)

본문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된 경건은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특히 이러한 행동을 경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한다면,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될 모든 상급을 잃게 되며 이러한 모습은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도를 잘한다는 칭찬을 듣는 순간 하늘에서 받아야 할 우리의 모든 응답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은밀한 곳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경건의 생활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누가 우리들을 바라보지 않거나, 칭찬을 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소서. 김영대 선교사(수단)가 계획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6:33)

우리는 금식과 같은 절제를 필요로 하는 경건의 활동을 할 때에도 종종 남이 알아주었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금식을 할 때조차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 열납될 만한 제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사용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 세상을 중시하여 자신의 쾌락이나, 다른 사람에게 허세를 부리려고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신중한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잘 절제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가를 잘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상급이 쌓여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항상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고 정욕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말고 우리의 전 마음을 하나님께만 기울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식주를 추구하는데 우리의 전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 기도 /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유병세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사역을 통하여 일본인이 두려움과 편리를 위하여 만든 800만 우상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 (7:24)

오늘은 북한이 무력 침공을 한 6.25전쟁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서로 남북으로 갈라져서 같은 동족끼리 총부리를 맞대고 지내고 있습니다.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쪽은 무력으로 나라를 통일시키려고 기회만 보고 있고, 또 한 쪽은 평화로운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민족을 어느 기초 위에 세워야 참다운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공산주의 사상일까요, 아니면 민주주의 사상일까요? 과연 어느 길이 우리와 우리 후손을 위한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초를 어디에 세워야 우리 인생이 참다운 길로 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초는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우리 인생의 기초가 주님의 말씀 위에 놓여져서 그대로 실행해 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와 우리 민족의 기초를 놓는다면 우리는 세계에 진리를 비춰 주는 모범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25를 맞는 오늘, 우리 민족의 앞날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힘을 합하여 우리 민족의 기초가 성경 위에 세워지도록, 말씀대로 지켜 사는 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민족 가운데에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전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민족이 되게 해 주소서.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의 사역으로 유학생들이 방황하지 않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8:17)

본문에는 인간들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들의 병을 친히 짊어지신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들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백성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일일이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하나님이며, 자기에게 나아 오는 자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며, 항상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서는 당시에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졌던 문둥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하인도 고쳐 주셨고,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던 주님께서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은 저녁에 돌아가 누울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낮아지신 주님께 겸손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하고,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닮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의 사역을 통해 물질의 풍요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이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9:13)

오늘 본문은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일, 그리고 세리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며,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선포하신 일 등입니다.

죄는 인간들의 모든 고통과 질병의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건강하고 깨끗하며 순결한 몸과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지만, 죄로 얼룩진 이 세상과 인간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로 인한 불행한 결과들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그가 중풍병에 걸릴 만한 직접적인 죄를 가졌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질병과 고통에는 죄가 담겨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은 먼저 그의 죄사함을 선포하셔서 영적인 문제 해결이 육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질서를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마태를 부르시면서 세상에는 건강한 자보다 병든 자들이 더 많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실제적인 관심은 육신보다는 죄를 사해 주심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의 지체가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소서.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선진국들이 아프리카의 굶주림과 병들을 보게 하셔서 후원과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9:35)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더러운 귀신들이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본문 32절 이하에 귀신들려 병어리던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둘째,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영혼구원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주도 되시기 때문에 주님은 인생들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 혈루증 환자를 고치신 일, 두 소경을 고치신 일 등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질병들이 고쳐지는 현장 속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병고침의 목적이 단순히 육체의 건강을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목자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야 했고, 또 세워지는 일꾼들을 통해서 계속 천국 복음은 전해져야 했습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천국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 기도 /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천국복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소수의 교인으로 만족하는 일본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 열 두 제자를 부르사...』(10:1)

예수님은 열 두 제자를 부르신 후에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함께 주셨습니다. 보냄을 입은 제자들은 마을로 다니면서 천국이 가까웠음을 전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축복들은 거저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음과 같은 사역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서 먹을 것과 쉴 곳을 제공하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의지한 채 사역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곳과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축복보다는 심판의 저주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큰 핍박과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그들의 어려움이 심각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형제가 형제를 내어주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자식을 죽게 하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는 일까지도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복음을 거부하며 핍박하는 심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사신 사람이 되게 하소서. 북한의 주인되신 하나님,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10:32)

참 제자는 누구입니까? 참 제자는 스승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참 제자의 도에 관한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참 제자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기 위해 세상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것처럼, 제자들을 죽이려고 헐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 제자들은 세상의 헐박과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 참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때때로 자기 집안 식구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제자들은 축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들을 영접하거나 대접한다면 그 상이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제자의 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삶을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 하나님 아버지, 참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5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6월에는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23 과

주기도문의 송영 - 결론

읽을 말씀 / 마태복음 6장 9 - 13절
역대상 29장 11 - 12절
찬 송 / 246, 483

주기도문은 주님의 메시지의 가장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전 메시지의 핵심적 요약임이 분명합니다. 티볼리안은 주기도문을 가리켜 “전 복음의 요약”이라고 한 점은 확실히 타당한 말입니다. 사실상 주기도문은 주님 자신의 인격과 모든 사역을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조금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를 초월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기도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모든 예배(모임)의 마지막에 형식적으로 외우는 형태입니다. 주기도문이 형식적인 기도문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습니다. 사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당대의 형식적인 유대인들의 기도문에 대항하여 주신 것인데, 오늘날에는 주님의 의도와는 정반대적으로 유대인들의 기도문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역공과를 통하여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결론을 지으면

서 우리는 새롭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날마다의 삶에서 높으신 성호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Soli Deo Gloria) !!!

1.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2. 주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계 4:11)

3.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 하나님은 언제까지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까?(롬 11:36; 딤후 1:17)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대개' 라는 말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개’라는 말은 옛말입니다. 오늘날 이 ‘대개’는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쓰이는 ‘대개’는 ‘대충’의 뜻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의미는 ‘큰 원칙은’ 또는 ‘큰 원칙으로 말하면’의 뜻인데, 그러므로 이러한 옛말의 뜻을 미리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왜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느냐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보다 분명한 의미를 알고 사용하면 더 큰 은혜가 나타납니다.

5.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암송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마 6:9-13, 찬송가 앞면 참조)

6. 우리의 기도는 ‘주기도문’의 원리, 내용, 취지와 항상 일치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① 주기도문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①

- 1) 과거 -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과거 회복을 간구,
죄사함을 간구
- 2) 현재 - 나라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 일용할 양식을 간구
- 3) 미래 -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구

여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개인을 위한 기도가 혼합되면서 대창을 이루고 있습니다.

❶ 주기도문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❶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을 맺습니다. 탕자가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근본 원리는 하나님 아버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1-33)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저절로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❶ 주기도문은 완전한 기도입니다 ❶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을 뿐 아니라 하늘과 땅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하늘의 욕구와 땅의 욕구가 모두 있습니다.

- 하나님의 욕구 - ① 이름 회복 ② 나라 건설 ③ 뜻 성취
- 인간의 욕구 - ① 육을 위한 양식 문제 ② 혼을 위한 보호 문제
③ 영을 위한 용서 문제

제 24 과

사도신경 서론 - 신앙고백

읽을 말씀 / 로마서 10장 9 - 10절

찬 송 / 455, 364장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여러 가지 특색 가운데 하나는 교리에 대한 강조가 약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교리는 성경을 기초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함축적으로 잘 정리하여 성도들이 진리 위에 서게 하는 기초를 제공하며, 악한 세력들에 대항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 신경(信經)이란?

신조(信條)와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신경대로 믿는 것이 기독교의 정통 신앙인 것입니다. 정통 신앙이란 이단 교리가 아니라 오랜 역사적인 계통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역사적으로 모든 성도의 신앙적 고백을 가장 잘 요약해서 나타낸 것이라고 인정되어 왔습니다.

1.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딤후 1:5)

왜냐하면 그는 제멋대로 믿은 것이 아니고 바로 믿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계로부터 바른 신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바른 신앙은 성경을 토대로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이스와 유니계는 디모데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딤후 3:15). 따라서 디모데의 신앙은 바른 믿음, 곧 정통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❶ 사도신경을 쓴 동기는 무엇일까요? ❶

2. 초신자들은 입교하려면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마 28:19). 여기에 대해 맹목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받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가르쳐서 온전한 신앙고백을 하게 하려고 함이었습니다.

3. 또 사도들이 별세한 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를 전하는 자가 생겼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하여 바른 신앙고백문이 필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❶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❶

4.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바른 ()을 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5. 짧은 시간 내에 ()의 진수를 일별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열매가 결정지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을 다 공부하자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기독교교리를 빨리 알고자 하는 신입교인에게는 그 지루함이 더할 것입니다. 66권을 종합하여 요약한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욕구를 채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사도신경을 자세히 풀어서 많은 시간을 두고 공부해야 하겠지만 가급적 요점만 추려서 기독교의 진수만 쉽게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신자에게는 확고한 신앙을 확립하고, 성숙한 신자에게는 이를 계기로 사도적 전승을 재 확인하여 성경을 재음미하고 밝히 익히는 데 도움을 갖고자 합니다.

“교리 설교는 상대가 신학생이면 몰라도 일반 교인 상대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딱딱하고 무미건조하므로 은혜가 적어서 교인들이 잘 모이지를 않기 때문이다” 고 혹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성경 전체에서 요점을 뽑아 체계있게 조직하여 치우치지 않고 바로 믿을 수 있도록 해놓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제 25 과

내가 믿는 하나님 -
성부에 대한 신앙고백

읽을 말씀 / 창세기 1장 1 - 2절

창세기 17장 1절

찬 송 / 73, 75장

어느 말에서건 첫 부분은 항상 중요하기 마련입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이 첫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로 천지창조에 대한 우리의 신앙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천지창조란 우리가 말을 쉽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 사역의 시작이요 모든 인간사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이 신앙고백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글의 구조는 목적어가 앞에 나오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내가 믿는다”는 말이 맨 먼저 나옵니다.

1.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할 때의 3가지 수식어를 찾아봅시다.

1) 창세기 17장 1절, 고린도후서 6장 18절

2) 창세기 1장 1절, 시편 121편 2절

3) 마태복음 6장 9절, 7장 11절, 요한복음 11장 41절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교회에서 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에나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다가도 교회 문을 나가기만 하면 진화론자들과 섞이어 똑같이 생각하는 버릇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교교육을 통해 진화론만을 배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세뇌가 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하루 빨리 잘못된 진화론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고백이 그렇게 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한 마디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얼마나 핵심적인 말이며 멋진 말입니까?

2. 천지만물은 누구에 의하여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1) 창세기 1 장

2) 히브리서 3장 4절

사도신경의 첫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으로 되어 있지만 보다 정확한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으로 고백하여야 합니다. 만들다와 창조의 뜻은 다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 천지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창조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히 11:3)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예수님을 지칭하기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이 신앙고백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운데 핵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알면 다 된 것입니다. 참으로 사도신경의 이 첫 구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1.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그 순간 일을 시작하시며 인간의 막다른 골목에서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또한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엘 샤다이)이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 전능하심과 그의 사랑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서 미래의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모순되고 어지럽고 불완전한 실패작 같으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에 믿는 자에게 낙심은 금물입니다.

이제부터 나의 생각, 나의 부족한 행위,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는 나타나심을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충전하고, 그 높으신 성호를 찬양해야 합니다.

제 26 과

성자에 대한 신앙고백

읽을 말씀 / 요한복음 1장 1 - 4절

요한복음 1장 14 - 18절

찬 송 / 86, 93장

사도신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고, 성령에 대해 고백하고, 교회에 대해 고백하고, 부활에 대해 고백하고, 영생에 대해 고백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왜 반 이상을 차지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물론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지식, 우리의 논리로 볼 때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세상 이치대로 생각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에게서 오셨다는 뜻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체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완전무결하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히 1:3).

2.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살펴봅시다. 누가 증거했습니까?

- 1) 누가복음 1장 32, 35절
- 2) 마태복음 3장 17절, 17장 5절
- 3) 마가복음 5장 7절
- 4) 마태복음 27장 54절
- 5) 마태복음 26장 63, 64절

3.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실까요?

- 1) 요한복음 1장 1-3절
- 2) 누가복음 2장 11절
- 3) 요한계시록 22장 11-14절

예수님에 대한 신앙고백 없이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고백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다른 많은 내용과 이적을 체험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핵심적인 교리를 모르면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백은 간단하게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희생과 토론의 결과로서 성경의 진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고백을 형성하는 데 역사하셨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전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교회는 비 온 후에 갑자기 솟아난 버섯처럼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터를 닦은 전통 속에서 많은 교부들이 투쟁하고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린 그 전통 속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공적 교리는 귀한 것이며 복된 것입니다.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